논어 6편 옹야 5장 · 원문·풀이

# 子曰：「回也，其心三月不違仁。其餘，則日月至焉而已矣。」

독음 · 자왈 회야 기심삼월불위인 기여 즉일월지언이이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안회는 오래도록 인을 떠나지 않았지만, 다른 제자들은 잠시 그 경지에 이를 뿐이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回 돌 회 회 / 也 어조사 야

其 그 기 / 心 마음 심 심 / 三 석 삼 삼 / 月 달 월 월

不 아닐 불 / 違 어길 위 위 / 仁 어질 인 인 / 餘 남을 여 여

則 곧 즉 / 日 날 일 일 / 至 이를 지 지 / 焉 어찌 언 언

而 말이을 이 / 已 이미 이 이 / 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